

청소년 문화권 탐방활동*

구 창 모**
이 춘 화
최 관 기

- I. 문화권 탐방활동의 개요
- II. 청소년 문화권 탐방활동의 실제
- III. 청소년 대상별 문화권 탐방활동 운영의 기본방향

I. 문화권 탐방활동의 개요

1. 문화권 탐방활동 수련거리의 개발 배경

그동안 우리의 문화 영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 의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 위주의 정부 시책은 문화발전의 정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진 1980년대 초 부터는 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문화가 한 민족의 삶의 질을 판단하고 국가의 저력을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국제화에 따른 외래문화의 대량 유입과 매스미디어의 확산으로 문화정보의 대량화, 가속화가 이루어져 우리의 문화풍토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특히 1990년도의 문화부 신설은 과거 한국문화의 낙후성을 회복하고 2000년대의 문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참여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문화사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는 청소년 부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주체성과 관련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민족적 자긍심 등에 관

*이 논문은 본 개발원 1992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 문화권 탐방활동 수련거리 개발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구창모(선임 연구원), 이춘화(연구원), 최관기(연구원)임.

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교육, 역사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스스로도 다양한 청소년 활동 유형중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다른 활동에 비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획일주의, 무분별하게 수용되어지는 외국 문화의 범람, 청소년의 모든 문제를 통계적 차원에서 설명해 보려는 과학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등 복합적인 현대사회의 속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연적 놀이 공간의 상대적인 축소와 성인들의 위락시설 급증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의 증가로 청소년 놀이 문화가 음성적이고 쾌락추구형으로 조장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청소년부에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1991)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1991)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과 기본법의 내용에서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체계화시키므로써 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주체성 확립과 올바른 역사의식의 정립을 위해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강조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련거리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 책자에서 언급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권 탐방활동 수련거리' 역시 전통문화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복합 수련거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학창시절의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장소로, 혹은 성인이 되어서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 장소로 경주나 부여 등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드물다. 이러한 지역은 문화유적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게 된다.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의 경우는 참가 학생의 수가 대규모일 뿐 아니라 짧은 일정, 안전사고로 인한 제한된 행동, 인솔교사의 전문적인 지식부족, 획일적 운영 등으로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는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가족여행의 경우도 유적지 앞에 세워진 안내판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어 유적지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책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재를 포함한 전통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조상의 얼을 기리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시켜 주체성의 확립과 올바른 역사의식의 정립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문화권 탐방 코스의 선정과 각 코스에 따른 해당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청소년 대상별 문화권 탐방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청소년 문화권 탐방활동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사항 즉, 수련거리의 계획과 운영, 활동내용, 평가, 유의사항, 지역안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므로써 지도자용 지침서 역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문화권 탐방활동의 정의

문화권 탐방활동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 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 '문화'라는 말처럼 다양하게 사용되고, 복잡적이며 종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는 드문 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정의는 총체론적인 입장과 관념론적인 입장으로 분류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총체론적 시각에서의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들을 포함하는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한편 관념론적인 관점에서 본 문화는 도구, 행동, 제도 등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바의 그런 행동으로 이르게 하는 기준, 표준 또는 규칙만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권 탐방활동에서의 문화의 의미는 탐방활동의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총체론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는 한 사회를 특징짓는 고유의 물질적, 정신적, 지적, 정서적, 상징적 특성들의 총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문화란 복잡성과 다양성, 변화와 발전이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문화를 생성시키는 주체나 환경에 의해 표출 양상도 다를 수 밖에 없다. 한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는 동질성을 지니면서도 나라안의 지역적·사회적·전통적 특성에 따라서 국부적 양상은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가 문화권역을 설정하려는 근거가 되는데 각 지역이 갖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동질성이나 유사성, 또는 연계성에 따라 지역적 분할을 시도하는 것이 문화권역의 설정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권은 공통의 특징을 가진 복합체로서 하나의 문화가 지리적으로 분포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즉,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문화사이에서 저마다의 문화요소에 유사한 형태가 보이고 그 요소가 전체로서의 각 문화의 복합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것을 포괄하는 지리적인 분포영역에는 어떤 공통된 문화적 통일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문화권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크게 문화 외적 조건과 문화 내적 조건으로 양분하는데, 문화 외적 조건으로는 행정구역상의 구분인 시·도·군계, 지리적 조건, 교통망 형성관계, 생활권 관계 등을 들 수 있으며, 문화 내적 조건은 문화적 양상의 동질성·유사성, 문화적 활동의 연계성과 교류관계, 문화활동 빈도수 등이다. 이 책자에서는 문화 외적 조건인 행정구역상의 구분과 문화 내적 조건인 문화적 양상의 동질성·유사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림픽 문화권, 중원문화권, 항일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영동문화권, 호남문화권, 탐라문화권 등 9개 문화권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문화권 탐방활동의 탐방 대상은 주로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개념 역시 그 설명이 요구되어진다. 문화재는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주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특히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 음악, 인종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의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문화, 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결국 청소년 문화권 탐방활동이란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활동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권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선정된 코스에 따라 찾아보는 활동을 의미한다. 물론 문화권 탐방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탐방의 대상을 문화재에만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산업시설이나 특산물과 같은 특정한 것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문화권 탐방활동의 교육적 의의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민족에 대해 외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다. 헌법 제1장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면서 강인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민족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많은 유산을 물려 받아왔다. 이렇게 독창적으로 형성된 민족문화가 바로 전통문화이며, 이러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주체성있는 자주문화를 확립시키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교육이나 문화권 탐방활동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이전에 조성하였던 많은 문화재들은 역사의 술한 굴곡속에서 소실되거나 변질된 것이 없진 않으나 우리들 스스로의 의식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치유되고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민족문화의 창달에 단절과 공백을 가져다 준 일제 36년은 식민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외부세력에 의해 과거를 망각해야만 하는 뼈아픈 시기이었다. 결국 개화사전에 편승한 민족혼의 말살 책략으로 한민족의 미풍양속은 세뇌되었고,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무지하고 무용한 것으로 왜곡되었다. 더구나 해방과 함께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외국의 이질문화가 고유문화와 충돌하면서 또 한번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 축적 형성되어 온 조상들의 삶의 흔적인 유형·무형의 문화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종 건축물, 사적, 분묘, 동굴, 패총 등의 문화 유적뿐 아니라 예술, 종교, 기술, 의식주 등과 관련된 관습이나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무형의 문화재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의 한국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지, 사적지, 각종 문화재 등의 탐방활동을 통해 문화의 기원과 조상들의 성장발달 과정,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거나,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과 민속예절 등을 현대적 감각에서 새롭게 재조명해 보는 일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청소년 문화권 탐방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의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통문화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특질을 파악하며 조상의 얼을 기리고, 민족 문화의 계승 및 창조와 발전을 위한 기초능력을 함양한다.

둘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지 등 각종 문화재를 탐방하므로써 우리의 문화가 형성되어진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식하고, 우리 문화자에 대한 긍지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새로운 마음 자세와 태도를 기른다.

셋째, 문화권 탐방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소양 및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과 민족적 자부심 및 호국의식을 고취시키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기른다.

넷째, 문화권 탐방활동 역시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집단활동을 통해 공통체 의식을 함양하고, 심성개발 및 질서 의식 배양, 협동정신의 증진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제공 등이 기대되어진다.

II. 청소년 문화권 탐방활동의 실제

1. 올림픽 문화권

올림픽문화권은 올림픽 개최지였던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범주이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민족문화예술의 중심지이다. 올림픽문화권의 탐방코스는 기본코스 1개와 지역별 코스 2개로 구성하였다. 기본코스에서는 올림픽문화권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탐방해야 하는 유적지와 명소를 선정하였고, 지역별 코스에서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하는 항몽문화코스과 전방지역을 견학하는 통일문화코스를 선정하였다. 수록된 탐방지는 총 37개소로 그 중 올림픽관련시설이 5개소이고, 문화유적지 및 명소가 32개소이다. 기본코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코스 : 서울

올림픽공원·동춘토성-서울올림픽기념관-방이동백제고분군-석촌동백제고분군-서울종합운동장-올림픽기념탑-올림픽대교-암사선사주거지-한강조정카누경기장-태릉선수촌-태강릉-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남산-잠실선착장-유람선-여의도선착장-KBS본관-국립묘지-서울대공원

2. 중원문화권

중원문화권은 충주시와 증원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범주이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의 각국이 서로 각축을 벌였던 요지로서 서로 다른 삼국의 문화가 존재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중원문화권의 탐방코스는 기본코스 1개와 주제별 코스 1개로 구성하였다. 기본코스에서는 중원문화권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탐방해야 하는 유적지 및 명소들을 선정하였고, 주제별 코스는 종교유적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수록된 탐방지는 총 58개소이다. 중원문화권은 한 시대에 의한 시간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지역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탐방지는 시대 구분없이 수록하였다. 기본코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코스 : 청주-청원-괴산-보은-충주
-충원-제천-단양

청주박물관-홍덕사지(고인쇄박물관)-용
두사지철당간-상당산성-3.1공원(용원장
터)-신채호선생사당-손병희선생생가-청
안향교-충민사-삼년산성-법주사-충렬
사-충주시립박물관-탄금대-중앙탑-중
원고구려비-충원미륵대사원지-누암리
고분-백운암철불좌상-의림지-신라적성
비-온달산성-조령관문

3. 항일문화권

항일문화권은 천안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지
역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범주이다. 이 지역은
많은 항일 독립투사를 배출한 곳으로 1987년
이들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기위해 천안군에 독
립기념관을 건립하였다. 항일문화권의 탐방코
스는 기본코스 1개와 지역별 코스 4개로 구성
하였다. 기본코스에서는 항일문화권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탐방해야 하는 유적지 및 명소들
을 선정하였고, 지역별 코스는 충남 동북부,
동남부, 서북부, 서남부의 4지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수록된 탐방지는 총73개소로 그
중 항일문화 유적지가 35개소, 지역문화 유적
지 및 명소가 38개소이다. 항일문화 유적지는
독립운동 또는 일본과 관련된 국난극복의 역사
가 담긴 유적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역문화
유적지 및 명소는 항일문화권 내에 있는 항일
과는 관계없으나 탐방의 의의가 있는 곳을 지
칭하는 것이다. 기본코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기본코스 : 천안-온양-아산-대전-금산

천안삼거리(독립투쟁의사광복회기념비)-
독립기념관-이동녕 생가-박문수유적-유
관순유적-기미독립운동기념비-김시민 장
군 유적지-기미 3.1운동기념비-천안시-
이충무공기념비각-온양민속박물관-이충
무공유허-이충무공묘-이규갑묘-충국순
의비-아산만방조제-온양시-대전-남간
정사·남간사·기국정-문충사-대전세계박
람회장-수심대-권율장군이치대첩비-충
열사-고경명순절비-위성통신지구국-철
백의총

4. 백제문화권

백제문화권은 백제의 고도 공주와 부여를 중
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범주이다. 이 지역
은 백제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지닌 다양한 문
화유산으로 인해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
다. 백제문화권의 탐방코스는 기본코스 1개와
지역별 코스 3개로 구성하였다. 기본코스에서
는 백제문화권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탐방해야
하는 유적지 및 명소들을 선정 하였고, 지역별
코스에서는 백제문화권을 세지역으로 나누어
웅진코스, 사비코스, 미륵사코스를 선정하였
다. 수록된 탐방지는 총59개소로 그 중 백제문
화 유적지가 28개소이고, 지역문화 유적지 및
명소가 31개소이다. 백제문화 유적지는 백제시
대의 유적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역문화 유
적지 및 명소는 백제문화권 내에 있는 다른 시
대의 유적지 및 명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
본코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코스 : 공주-부여-논산-익산

공산성-송산리고분군-국립공주박물관-창벽-동학사-갑사-공주시-능산리고분군-국립부여박물관-부소산성-정림사터-궁남지-성흥산성-대조사-무량사-부여읍-관촉사-계백장군묘-개태사-견훤묘-천호동굴-미륵사터-왕궁리 5층석탑-연동리석불좌상-익산쌍릉

기본코스 : 경주

김유신장군묘-진흥왕릉-서악서원-대종무열왕릉-천마총-오릉-첨성대-반월성-안압지-박물관-분황사-표암제-백률사-김유신장군동상-명활산성-천군동쌍탑-포석정-삼릉-남산쌍탑-서출지-통일전-화랑교육원-영지-패룡-방형분-석굴암-불국사-경주민속공예촌-경주월드-보문단지

5. 신라문화권

신라문화권은 신라의 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범주이다. 이 지역은 신라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지닌 다양한 문화유산으로 인해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신라문화권의 탐방코스는 기본코스 1개와 주제별코스 4개로 구성하였다. 기본코스에서는 신라문화권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탐방해야 하는 유적지 및 명소들을 선정하였고, 주제별코스는 삼국통일과 관련된 코스, 고분코스, 불교문화재코스, 사찰과 성 및 궁궐지코스 등 신라문화권의 특징을 살린 주제를 선정하였다. 수록된 탐방지는 총 51개소로 그 중 신라문화 유적지가 40개소, 지역문화 유적지 및 명소가 11개소이다. 신라문화 유적지는 신라 또는 통일신라시대의 문화유적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역문화 유적지 및 명소는 신라문화권 내에 있는 다른 시대의 문화유적지 및 명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본코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가야문화권

가야문화권은 가야시대의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문화범주이다. 가야의 영역이었던 창녕, 성주, 고령, 김해, 함안, 고성 등은 가야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인해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가야문화권의 탐방코스는 기본코스 1개와 주제별코스 2개로 구성하였다. 기본코스에서는 가야문화권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탐방해야 하는 유적지 및 명소들을 선정하였고, 주제별코스는 전쟁과 관련된 코스, 사찰코스를 선정하였다.

수록된 탐방지는 총 56개소이다. 그 중 가야문화 유적지가 15개소, 지역문화 유적지 및 명소가 41개소이다. 가야문화 유적지는 가야시대의 문화유적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역문화 유적지 및 명소는 가야문화권내에 있는 다른 시대의 문화유적지 및 명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본코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코스 : 진주-총무-거제-창녕-김해-부산

진주박물관-진주성-축석루-총무 충렬사-세병관-한산도 이충무공유적-기성관-진흥왕적경비-술정리동서삼총석탑-관통사-회현리 패총-김수로왕릉-애안리 고분-부산시립박물관-범어사-금정산성-동래읍성-동래향교

7. 영동문화권

영동문화권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동지방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범주이다. 이 지역은 강릉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맥을 경계로 고유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영동문화권의 탐방코스는 기본코스 1개와 지역별 코스 2개로 구성하였다. 기본코스에서는 영동문화권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탐방해야 하는 유적지 및 명소들을 선정하였고, 지역별 코스는 영동지역의 중심지인 강릉시 탐방코스과 명주군 탐방코스를 선정하였다. 수록된 탐방지는 총 41개소이며, 기본코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코스 : 강릉-명주-설악산

강릉 객사문-대창리 당간지주-수문리 당간지주-신복사지 삼총석탑 및 보살좌상-황산사-화부산사-향현사-문묘대성전-오죽헌-해운정-경포대-허난설헌 생가-명주군왕릉-대공산성-동대굴-설악산

8. 호남문화권

호남문화권은 전주와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

남북도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범주이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곡창지대라는 경제적 바탕위에 불교문화가 번성하였고, 이러한 종교활동이 예술창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문화의 계승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호남문화권의 탐방코스는 기본코스 1개와 지역별 코스 2개로 구성하였다. 기본코스에서는 호남문화권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탐방해야 하는 유적지 및 명소들을 선정하였고, 지역별 코스에서는 호남문화권을 좀더 자세히 탐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탐방코스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수록된 탐방지는 총 50개소이며, 기본코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코스 : 전주-담양-광주-해남-구례-남원

풍남문-한백당-전동성당-금산사-벽골제-만석브터-황토현전적지-전봉준고택-죽물박물관-면양정-송강정-식영정-환벽당-국립광주박물관-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운고산유적지-명량대첩비-김윤식생가-정다산유적지-강진묘-송광사-화엄사-광한루-만복사터-만인의총

9. 탐라문화권

탐라문화권은 탐라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범주이다. 이 지역은 섬지방이 갖고 있는 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탐라문화권의 탐방코스는 제주도를 일주하는 기본코스 1개를 선정하였고, 별도로 한라

산 등산코스 5개를 제시하였다. 수록된 탐방지는 총 22개소이며, 기본코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코스 : 제주시-제주서부-제주동부-서귀포시

삼성혈-민속자연사박물관-모총사-오현단-관덕정-용두암-항몽유적지-협재굴-협재해수욕장-추사적거지-하멜표류기념비-한라산-함덕해수욕장-만장굴-비자림-성산일출봉-산굼부리-성읍민속마을-제주민속촌-정방폭포-천지연폭포-천제연폭포

III. 청소년 대상별 문화권 탐방활동 운영의 기본 방향

1. 국민학생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들은 그들의 성장 발달 단계상 가족중심적인 생활 경향이 강할뿐 아니라, 또래집단에 의한 사회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교육제도 및 사회환경의 열악한 여건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지식중심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이용한 청소년 단체활동은 그들의 신체적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줄뿐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의 향상 및 공동체 의식의 증진 등 다양한 인성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문화권 탐방활동의 프로그램은 현대사회속에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다

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계승 및 창조와 발전을 위한 기초능력을 함양시키며 또한 심성개발 및 질서의식 배양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제공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민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학생을 위한 문화권 탐방활동의 운영모델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의거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1) 국민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과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탐방활동을 위한 이 동시간과 거리도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 2) 탐방유적에 대한 역사적 지식의 습득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문화적 감각이나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탐구중심의 활동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3) 생명과 유익함을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를 포함하여 협동과 경쟁을 조화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
- 4) 국민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즐겁고 재미있는 오락, 친교활동 시간을 대단위 활동 사이사이에 배정한다.

2. 중·고등학생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이 시기에는 여러가지 과업에 대한 불안,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한 직업선택과 이에 따른 경쟁의식, 성적 성숙으로 인한 내적 충동의 변화 등 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이러한 문제 외에도 과중한 학교수업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는 어느 시기의 청소년들보다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신체적인 면에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겪을 뿐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지능의 발달과 추상적 사고능력과 논리적 추리능력이 신장되며, 상상력의 발달로 인해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동년배 집단을 형성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집단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동일시하는 특징이 있어 이로 인해 봉사, 욕구, 소속, 우애·협동의 욕구, 남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단지 평균적인 발달과정과 행동특성일뿐 모든 청소년이 똑같은 속도로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체적 발달과 관련된 영양장애나 과다, 학습지진, 과잉보호, 가정의 압박과 구속 등이 그들의 발달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발달 단계에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권 탐방활동의 모델은 이들의 발달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들의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문화권 탐방활동 모델개발의 기본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탐방하는 문화권이 갖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특징들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 2) 탐방예정인 문화유적지나 유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 3)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보존·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 4)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민속놀이를 통해 조상의 얼과 정신을 익히게 한다.

- 5) 개별적인 추적활동을 통해 자립심과 인내심을 키워준다.
- 6) 친교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성친구와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이성교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7)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3. 대학생

청소년 대상별로 본 대학생들은 그들의 신체적 활동 욕구가 왕성하고 자아실현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즉, 그동안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지식을 추구하여 왔으며, 초·중·고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보여주는 욕구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개별화되고 성숙된 단계의 욕구들을 발산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학교 씨클활동이나 수련활동들을 몇 번씩 경험하였던 그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기존의 교과서적인 해석과 접근의 틀에서 탈피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자세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심리적, 생리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권 탐방활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대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분별력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이라 볼 수 있으므로, 오늘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바람직한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새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구문물과 과학물질 문명속에 희석되고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옛 것을 다시 찾고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수련거리의 선정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청소년들을 위한 내용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주제에 대한 치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1) 문화재에 대한 주제별 강연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인다.
- 2) 문화유적지의 탐방을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3) 사물놀이나 탈춤같은 전통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4) 환경오염이나 자연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부여한다.
- 5)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6) 산업시설 견학을 통해 국가경제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한다.
- 7) 모의재판이나 역할극 등의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갖는다.

4. 근로 청소년

근로청소년은 같은 연령층에 있는 학생청소년, 즉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발달단계상의 특징은 비슷하지만 산업인력으로 근로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인으로서의 특징과 청소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근로청소년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근로와 학업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청소년들

이 직업생활과 학업을 원만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배려가 절실한 상황에 있지만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근로청소년들은 일찍부터 사회화 학습의 주요집단인 가정과 학교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자기수용이 약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주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학벌위주의 현 사회풍토는 근로청소년들로 하여금 깊은 열등감을 느끼게 하여 자부심의 상실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들의 집단활동 참여는 집단생활 경험을 통한 소속감과 집단 목표달성의 기여를 통해 자부심을 형성해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근로청소년은 같은 연령층의 학생청소년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따라서 단체활동을 통한 적절한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문화권탐방활동의 모델은 근로청소년의 발달 단계뿐 아니라 그들이 처해있는 물리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청소년을 위한 모델개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탐방하는 문화권이 갖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특징들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 2) 근로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 3)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직장 생활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연스

- 럽게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 4) 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한다.
- 5) 근로청소년들은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단체 활동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간의 연계성 및 탐방지역의 이동시간 등을 최대한

- 한 고려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 지역을 탐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6) 단체활동에 참여하므로써 소속감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7)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통문화의 이해를 위해 역사가의 및 민속놀이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참 고 문 헌

강릉문화원(1990), 임영의 맥, 강릉문화원.

경북대학교 사학과(1991), 고적답사자료집, 경북대학교.

경상남도 창원군 교육청(1987), 전통문화교육 학습지도안, 경상남도 창원군 교육청.

국립경주박물관(1991), 경주이야기, 통천문화사.

국립중앙박물관(1991), 신비의 고대왕국 가야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1992), 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권이중, 남정걸 편(1988), 사회교육 및 청소년 프로그램편람, 교육과학사.

김용현(1990), 사회교육학개론, 문우사.

김현길(1991), 중원문화산책, 청지사.

동아출판사(1989), 동아시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문화부(1990), 문화가족 제2호, 문화부.

문화재관리국(1977), 문화유적총람, 문화재관리국.

_____ (1987), 문화유적기행-서울·경기, 우진문화사.

_____ (1985), 문화재안내문안집-서울

특별시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_____ (1986), 문화재안내문안집-인천 직할시·경기도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_____ (1987), 문화재안내문안집-강원도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_____ (1987), 문화재안내문안집-충청북도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_____ (1987), 문화재안내문안집-충청남도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_____ (1988), 문화재안내문안집-전라북도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_____ (1989), 문화재안내문안집-광주 직할시·전라남도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문화지도 편찬위원회(1992), 서울의 문화지도, 신구문화사.

박동현(1991), 구름에 달가듯이, 샘터.

배호순(1990), 평가의 원리, 교육과학사.

양 춘(1980),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문제, 한국사회개발연구II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군본부(1987), 청소년을 위한 명소순례안내,

- 육군본부.
 전라북도(1989), 하늘과 땅 사이, 전라북도.
 천안문화원(1991), 천안문화 제13호, 천안문화원.
 최상호(1989), 사회교육방법론, 교학연구사.
 충북지역개발회(1990), 아름다운 충북, 충북지역개발회.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1991), 사회교육방법론, 형설출판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7), 전통문화예술활동현황 조사보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_____(1988), 지역별 문화역량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올림픽아카데미(1984), 올림픽운동과 사회발전, 한국올림픽아카데미.
 한국일보사(1990), 신한국의 여로-경주, 한국일보사.
 _____(1990), 신한국의 여로-부산, 한국일보사.
 _____(1990), 신한국의 여로-제주, 한국일보사.
 _____(1991), 신한국의 여로-다도해, 한국일보사.
 _____(1991), 신한국의 여로-부여·공주, 한국일보사.
 _____(1991), 신한국의 여로-설악·동해, 한국일보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하계학술고적답사자료집-웅진·사비문화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91), 청소년 야영수련활동 프로그램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연맹(1990),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적탐방, 한국청소년연맹.
 한길사(1986), 한길역사기행 제1권, 한길사.
 한림대학교 사학과(1992), 춘계학술답사자료집-가야문화의 성립과 멸망, 한림대학교.
 한상복 외(1985),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
 Anderson, S.B. & Ball, S.(1978), *The Profession and Practice of Program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Knowles, M.S.(1980),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Chicago: Follett Publishing Company.
 Provus, M.M.(1971), *Discrepancy Evaluation* Berkeley, Cal: McCutcheon.
 Tylor, E.B.(1971),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London: J. Murray.